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

손민숙 연구원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상업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파급효과가 예상됨. 기업휴지보험 분쟁은 일률적 판단이 어렵고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 사업 연속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사안으로 각국 기관 및 보험업계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휴지보험(BI: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¹⁾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상업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파급효과가 예상됨²⁾

- 미국은 연방법원에 101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³⁾ 집단 소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369개의 기업이 Hiscox Action Group을 구성하고 Hiscox를 상대로 4,700만 파운드(약 5,8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함⁴⁾
 - Hiscox는 보험약관상 법정감염병(Notifiable Disease)을 원인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최대 10만 파운드(한화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음⁵⁾
 - 그러나 보험금 청구가 제기되자 반경 1마일 이내 사건이 발생하여 접근금지 조치가 있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강제폐쇄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또한 코로나19는 규모가 과도하여 민간 보험회사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함⁶⁾

1) 우리나라의 경우 BI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기업휴지보험'으로 칭하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조업·영업중단손실보험도 포괄하고 '이익 상실보험' 또는 '이익보험' 등으로 칭함

2) Reuters(2020. 5. 23), "Insurer AXA must pay restaurant's COVID-19 losses, French court rules"

3) Jim Sams(2020. 5. 22), "Federal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Suits Now Top 100: Many More Expected", *Insurance Journal*

4) Harry Curtis(2020. 6. 24), "Hiscox Action Group seeks 'limited' role in FCA BI test case", *Insurance Post*

5) Joanna Partridge(2020. 5. 3), "Hundreds of UK firms join forces to sue Hiscox over lockdown insurance", *The Guardian*

6) Terry Gangcuangco(2020. 4. 14), "Coronavirus: Lawsuit looms for Hiscox over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 *Insurance Business*

- 프랑스에서는 AXA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⁷⁾
 - 파리 상업법원(Paris Commercial Court)은 원고 청구의 긴급성 및 적정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⁸⁾ 2개월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 보험회사인 AXA는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또한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면책사항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기업휴지보험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상 물적 손해(Physical Loss of Property)’가 발생했는지이며, 그 외 약관 표현 해석상 차이로 인한 면책사항 해당 여부 및 담보위험의 범위 등이 쟁점임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전제로 ‘물적 손해’ 발생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은 경우 대부분 물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⁹⁾
 -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들은 바이러스가 건물 내·외부를 오염시킴으로써 잠재적인 재산 교체 및 오염 제거 비용, 업무중단 손실 등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 그러나 쉽고 빠르게 제거·복구할 수 있는 오염 및 일시적 손상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물적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물리적 변경 및 영구성이 필요함¹⁰⁾
- 바이러스에 의한 물적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감염병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됨
 - 면책사항으로 감염병 또는 팬데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물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경우 담보위험의 범위에 대하여 논쟁이 있음
 -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에서 강제폐쇄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쟁점임
 -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에서 감염병의 범위에 ‘팬데믹’을 포함하는지 쟁점임

7) Elizabeth Pineau, Maya Nikolaeva(2020. 5. 22), “French Court Orders AXA to Pay Restaurant’s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AXA Vows to Appeal”, *Insurance Journal*

8) Jones Day(2020. 5. 28), “French Court Orders Insurer to Indemnify Restaurant’s COVID-19-Related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Lexology*

9) Bill Wilson(2020. 3. 24), “Commentary: Does Business Income Insurance Cover Coronavirus Shutdowns?”, *Insurance Journal*

10) Shannon O’Malley, Zelle LLP(2020. 3),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Coverage and Coronavirus”, *Merlin*

■ 기업휴지보험 분쟁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법원의 판단 외에도 입법부 및 행정부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입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소송의 일률적 판단을 위해 관할권을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로 통합할 것인지 논의 중임¹¹⁾
 - 일률적 판단도 중요하나 주별로 법이 상이하여 소송 통합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 뉴저지 등 8개 주에서는 면책요건을 무효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¹²⁾¹³⁾
 -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 계약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함
 - 글로벌 금융산업기구인 국제금융연구원(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도 보험효용성 감소, 보험회사 철수, 보험상품의 전반적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영국 금융회사 영업행위감독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시장안정성 확보 및 계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법원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¹⁴⁾
 - 40개 보험회사의 500개 이상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결과, 논쟁 가능성이 있는 17개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7월 중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되어 있음¹⁵⁾
 - 17개 단어에는 ‘물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접근 금지(Non-damage Denial of Access)’, ‘강제폐쇄명령(Public Authority Closure)’, ‘법정감염병 발생(Notifiable Disease Outbreak)’ 등이 포함됨¹⁶⁾

■ 기업휴지보험 분쟁은 일률적 판단이 어렵고,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 사업 연속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사안으로 각국 기관 및 보험업계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 프랑스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AXA는 약관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¹⁷⁾ 국가별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기금 마련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영국 FCA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 법원 사례 분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함
- 유럽위험관리협회(FERMA: Federation of European Risk Management Association)는 기업휴지보험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시작함¹⁸⁾
- 그 외에도 사회보험, 공공재보험의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 중임 [kiri](#)

11) Alison Frankel(2020. 4. 22), "The race is on to lead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litigation", *Reuters*

12) 안소영(2020. 5. 25), 「코로나19발(發) 미국 기업의 조업중단 보상에 대한 논의」, 보험연구원

13) By Huw Jones, Carolyn Cohn(2020. 5. 7), "Forced Payouts of Pandemic Claims Risk Insurers'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s", *Insurance Journal*

14) FCA(2020. 5. 1), "FCA statement - insuring SMEs: business interruption"

15) FCA(2020. 5. 15),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16) FCA(2020. 6. 1),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draft guidance for firms"

17) National Law Review(2020. 6. 4), "Global Insurer Agrees to Pay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Claims"

18) Insurance Journal(2020. 5. 7), "FERMA Forms Task Force to Find Solution for Non-Damage BI Cover - Such as Pandemic"